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16.(월) 14:00 이후(11. 17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11. 16.(월)

# 국토부, 반복되는 철도사고·운행장애 예방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역량 결집

- 16일 관계기관 합동 철도안전간담회 개최…주요 사고·운행장애 원인 및 개선조치 점검
- 노후시설 긴급 보강 및 차량 고장 예방정비 강화, 기존 대책 이행 점검…철도 안전 강화 종합 대책 논의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홍지선)는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사고별 **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**하고, **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 등 **철도 유관기관*** 및 **민간 전문가**와 함께 **제4차 철도 안전 간담회를 개최**하였다.

*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교통안전공단

□ 그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**안전대책, 현장감독 강화**에 힘입어 **철도사고는 감소 추세***이나, 유사 사고와 운행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①사고·장애의 원인 및 개선대책을 심층 논의하고, ②기존 안전대책이 **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**하였다.

* 철도사고 : ('22)82건 → ('23)68건 → ('24)46건 → ('25)42건 → ('26.10월)25건

□ 먼저, **하반기**에 **발생한 주요 철도사고·운행장애 15건**에 대한 **원인을 심층 분석**하고 **재발방지대책을 점검**하였다.

○ (**철도차량**) KTX 열차의 동력전달장치 고장과 관련하여 **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열차 11편성에 대한 점검을 완료**하였으며, 제동장치와 전기제어 장치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**노후 부품 교체**와 **정비 방법 개선**을 추진한다.

- 특히, KTX-산천 열차의 갑작스러운 비상 제동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**전기부품(중련계전기)의 교체주기**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**단축**하고, 제동장치의 공기압을 감지하는 스위치 10개를 **선제적으로 교체**하는 등 **재발방지 조치를 시행**하였다.

○ (**철도시설**) 부산역 탈선사고 이후 열차 운행이 잦은 24개 역의 선로 중 **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목침목* 시설을 우선 점검·보강**하고,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**보호장치(궤간 확장 방지장치) 125개를 설치**하였다.

* 목침목: 철로 아래에 가로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, 열차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나무 받침대

- 아울러, **전국**의 **목침목 160.9만 개를 연말까지 모두 점검**하고, **노후 목침목 약 1.6만 개를 연내 새 침목으로 교체**하는 등 선로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○ (**전기설비**) 선로전환기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**서울역 내 67개소의 주요 작동부**에 **윤활 조치를 완료**하였으며, **고장난 전환기와 동일한 유형의 선로전환기**도 **11월 내 모두 점검**할 계획이다.

○ (**열차운행**) 화물열차의 탈선과 여객열차의 무정차 통과 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**열차를 정차·출발시킬 때 지켜야 할 운전 절차를 개선**하고, 승무사업소를 대상으로 **특별 안전점검을 실시**하였다.

- 특히, **열차 구름*이 발생하면 관제에 즉시 알리고 주변 선로의 안전 상태를 확인**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. 또한 51개 승무사업소의 열차 운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**특별 안전교육**을 실시하였다.

* 열차 구름: 정차 중인 열차가 의도하지 않게 움직이는 현상

□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「**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대책**」의 **추진 상황을 점검**하고, **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**할 수 있도록 **추가 개선방안을 논의**하였다.

○ (**작업방식 개선**) 한국철도공사는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차량 정리 작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**11월 후방카메라 기술 개발을 완료**하였으며, 이후 **현장 검증 등을 통해 도입 대상역을 확정**해나갈 예정이다.

○ (**첨단기술 도입**)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은 **현재 3개역에 도입을 완료**하였으며 **2027년까지 총 8개역에 단계적으로 확대***해나갈 계획이다. 또한 AI CCTV를 통한 **작업자 위험 예측 시스템**도 **2027년 동해역에 시범 도입할 계획**이다.

* (완료) 제천조(상선),영주,괴동, (~'27) 제천조(하선),수색,도담,대전조,동해,오봉,
추가로 '28년 의왕역에도 도입 추진

○ (**작업환경 개선**) **차량정리작업장 내 이동통로 및 시야 확보**를 위해 **3개역 20개소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개선**하였으며, 향후 **야간작업 안전 확보**를 위해 **2028년까지 100개소 이상의 조명시설을 개선**해나갈 계획이다.

○ (**이행관리 강화**) 아울러 관리자의 **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제도화**하고,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한 **수시 점검과 우수 안전개선 사례에 대한 포상**을 통해 **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**이다.

□ **국토교통부**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**개선 실적과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관리**하는 한편,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**추가 안전대책을 마련**할 계획이다.

□ **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**은 "그간 다양한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**유사한 사고**가 **반복**되는 것은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안전관리 체계를 **근본적**으로 **점검**해야 한다는 의미"라며,

○ "**철도 차량과 시설 관리**를 **강화**하고, 첨단기술을 활용해 **인적오류**를 **최소화**하는 등 **사고 예방**의 **실효성**을 높일 수 있도록 **관계기관**과 함께 연내 「**철도 안전 강화 종합대책**」을 마련하겠다"고 밝혔다.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국토교통부 | 철도국<br>철도운행안전과 | 책임자 | 과 장 김혜진 (044-201-461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민정 (044-201-4620) |
| | 철도국<br>철도안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김동익 (044-201-460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 혁 (044-201-4602) |
| 협조 | 한국철도공사<br>안전분석처 | 책임자 | 처 장 노준기 (042-615-3831) |
| | | 담당자 | 부 장 이재구 (042-615-3833) |
| | 한국철도기술연구원<br>철도차량본부 | 책임자 | 본부장 최성훈 (031-460-5209) |
| | | 담당자 | 연구원 홍성광 (031-460-5605) |
| | 한국교통안전공단<br>철도안전처 | 책임자 | 처 장 이창근 (054-459-7321) |
| | | 담당자 | 부 장 엄범규 (054-459-7327) |
| | 국가철도공단<br>시설계획처 · 시스템관리처 | 책임자 | 부 장 신용호 (042-607-3462) |
| | | 담당자 | 차 장 정승환 (042-607-3293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